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1)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 코로나 시기(2021년 조사 결과) 포함 -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 01. 20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5
2.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시도별 가구소득 관련 변화	8
2) 시도별 가구 재무상태(자산 & 부채) 변화	18
3. 나가며	32

요약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소주제별로 연속하여 분석 중인 자료 중의 하나로, 이번 주제는 ‘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이다.

지난 보고서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1차(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 2차(가구주 성별 · 종사상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3차(가구주 교육정도 및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4차(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5차(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등으로 전체 가구나 가구주 특성 그리고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 보고서들과 차이가 있다.

첫째, 이번 보고서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 관련 통계치는 2020년(2020.01~12월) 기준이며, 자산 및 부채 관련 통계치는 2021년 3월 기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전년 대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시도별 통계치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바, 이번 보고서의 주된 시계열 분석 기간은 이전 보고서(2010~2020년)들과는 달리 2012년부터 2021년이다.

셋째, 이전 보고서가 주로 가구 집단 간 비교 · 분석에 치중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시도별 즉 지역 간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 시도별 가구소득 관련 변화

2021년 기준 경상소득은 세종(7,488만원), 서울(6,826만원), 경기(6,72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경상소득은 6,125만원 이었다. 경북의 경상소득은 5,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세종시의 68.2% 수준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경상소득 순증액은 인천(2,420만원), 제주(2,250만원), 전북(2,174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1,892만원

이었다. 순증액이 가장 낮은 지역 역시 경북(1,208만원)이었다.

코로나 시기(2020년 소득) 시도별 전년 대비 경상소득 증가율은 전북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7.27%), 대전(6.95%) 등이었다. 전년 대비 경상소득 순증액 또한 전북(405만원), 제주(402만원), 대전(397만원) 등이었고, 전국 평균 소득증가율은 3.39%, 순증액은 201만원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 경상소득은 변화가 없었다.

2021년 기준 가구 노동소득은 세종시가 5,3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4,636만원), 경기(4,463만원)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노동소득은 3,855만원이었다. 반면 노동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2,827만원)으로 세종시 노동소득의 53.0%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평균 노동소득 순증액은 1,210만원, 증가율은 45.75%였다.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노동소득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대전(9.15%), 충북(7.63%), 충남(6.01%)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1.69%였다. 노동소득 순증액은 대전(339만원), 세종(292만원), 충북(23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64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사업소득은 제주(1,484만원), 전남(1,393만원), 전북(1,334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1,135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전국 평균 사업소득 순증액은 0원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사업소득 순증액과 증가율은 각 -16만원과 -1.39%로 자영업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와중에도 광주(200만원), 전북(93만원), 경북(40만원) 등은 사업소득이 늘었으며, 사업소득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세종시로 전년 대비 -318만원이 줄었고, 대구(-248만원), 충북(-124만원) 등도 줄었다.

2021년 기준 재산소득이 많은 지역은 세종(740만원), 서울(686만원), 인천(481만원)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432만원 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평균 재산소득 순증액은 243만원, 전국 평균 증가율은 128.57%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재산소득 순증액은 서울(77만원), 전북(65만원), 울산(51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15만원이었으며, 증가율은 3.60%였다.

2021년 기준 이전소득은 전남(875만원), 강원(839만원), 광주(830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703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평균 이전소득 순증액은 439만원, 증가율은 166.29%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는데, 해당 기간 기초연금이나 육아수당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이전소득 순증액은 제주(243만원), 전남(215만원), 강원(1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138만원, 증가율은 24.42%였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2019년에 비해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시도별 가구 재무상태(자산&부채) 변화

2021년 기준 가구 총자산은 서울이 76,5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75,688만원), 제주(56,760만원)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50,253만원이었다. 자산이 적은 지역은 경북(31,143만원), 충남(31,483만원), 전남(31,646만원)의 순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자산 순증액은 서울(29,464만원), 제주(28,603만원), 세종(20,971만원)의 순으로 많았는데, 세종은 단 4년 만의 증가분이었다. 자산 증가율은 제주가 101.58%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55.47%였다.

코로나 시기(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자산 증가율은 세종시가 26.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23.65%), 부산(20.52%)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2.82%였다. 전년 동월 대비 자산 순증액 또한 세종시가 16,0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 금융자산은 서울(17,212만원), 세종(12,816만원), 경기(12,509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은 11,319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평균 순증액은 3,178만원이었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39.04%였다. 코로나 시기 전년 동월 대비 전국 평균 순증액은 815만원이었으며, 증가율은 7.76%였다.

2021년 기준 가구 실물자산은 세종(62,872만원), 서울(59,366만원), 제주(48,232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은 38,934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평균 실물자산 순증액은 14,750만원, 전국 평균 증가율은 60.99%로 금융자산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시기 전국 평균 실물자산 순증액은 4,895만원, 증가율은 14.38%로 전반적으로 실물자산이 늘었지만, 전남만 유일하게 가구 -334만원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시도별 가구 부채는 세종(13,063만원), 서울(11,716만원), 경기(11,026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은 8,801만원 이었다. 전남 가구 부채는 4,622만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세종시의 35.4%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가구 부채 순증액은 대구(4,667만원), 부산(4,589만원), 인천(3,609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가구 부채 순증액은 3,351만원이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1.49%로 자산증가율보다 높았다.

2021년 3월 기준(코로나 시기) 전년 동월 대비 가구 부채 순증액은 세종(2,270만원), 부산

(1,627만원), 대전(1,544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545만원 이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60%였다.

2021년 기준 가구 순자산은 서울(64,862만원), 세종(62,625만원), 제주(48,99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41,452만원이었다. 가구 순자산이 적은 지역은 충남(25,681만원), 경북(26,129만원)과 충북(26,747만원)의 순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서울(26,011만원), 제주(25,681만원), 대전(15,345만원)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14,577만원이었다. 순자산 증가율은 제주(110.15%), 강원(76.86%), 광주(74.82%)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54.24%였다.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순자산 순증액은 세종(13,747만원), 서울(8,100만원), 경기(7,428)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은 5,165만원이었다. 순자산 순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57만원)으로 세종시 순증액의 0.4%에 불과했다. 순자산 증가율은 세종(28.13%), 대전(23.67%), 부산(19.69%)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4.23%였다. 전남 지역 증가율은 0.21%에 머물렀다.

이번 보고서는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가구소득은 코로나 국면에도 3.39% 증가했는데,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24.24%)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었다. 한편 지역별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은 노동소득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2021년 가구 순자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23%나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높은 실물 자산(부동산) 증가율이었다. 코로나 시기 세종시 가구 순자산이 1년간 13,747만원이나 늘어났지만, 전남은 불과 57만원 증가하는 등 시도별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자산 불평등 악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소득 증대 및 자산 불평등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소주제별로 연속하여 분석 중인 자료 중의 하나로, 이번 주제는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이다. 이전 보고서들의 주제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보고서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은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했는데 ▷경상소득 불평등은 여전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세후소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지만 나타났고 ▷순자산 불평등은 2017년 이후 다시 심해지고 있었으며 ▷2020년 기준 중위 가구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모으기 위해서는 62.9년이 걸렸으며 ▷미래 불확실성 확대로 가구는 소비지출을 자제하고 있었으며, 부채 급증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 추세를 보였는바 ▷주택가격 안정과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보고서는 ‘가구주 성별 · 종사상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으로 ▷남 · 여 가구 간은 물론 상용노동 및 임시일용직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었고 ▷고소득 · 고자산 가구 집단이 가계부채를 주도적으로 확대, 자산 증식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2016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이 나빠지는 한편, 소득 취약 가구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바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와 가계부채 공급요인의 적극적인 통제 및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 분석되었다.

3차 보고서는 ‘가구주 교육정도 및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으로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2016년 이후 급속하게 벌어졌는데,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했고 ▷그 주요 원인은 부채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증식과 2016년 이후의 주택가격 급등이었고 ▷20대 가구소득 및 자산 변화는 ‘N포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가구 분포가 급감하면서 소득증가율도 가장 낮았고, 저축가능액으로 2020년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모으기 위해서는 94.9년이 소요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대가로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유일한 가구 집단이

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가구 집단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시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가계부채 관리에서 벗어나 다주택자 재테크(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차 보고서는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으로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구 집단 간 교육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학력별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무상 교육 등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난바,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보고서는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2017년 이후 ‘순자산 5분위 배율(2020년 기준 166.5배)’이 급등하고 있었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모두 순자산 5분위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보였으며 ▷순자산 5분위 가구 간 교육비 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현재 불평등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순자산 1분위 가구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경제 상황 악화 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지난 보고서들은 전체 가구나 가구주 특성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 보고서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이번 보고서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¹⁾를 반영하여, 소득 관련 통계치는 2020년(2020.01~12월) 기준, 자산 및 부채 관련 통계치는 2021년 3월 기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전년 대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시도별 통계치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바, 이번 보고서의 주된 시계열 분석 기간은 이전 보고서(2010~2020년)들과는 달리 2012년부터 2021년이다.

셋째, 이전 보고서가 주로 가구 집단 간 비교 · 분석에 치중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시도별 즉 지역 간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및 통계표(2021.12.16.(목)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보고서 이용 시 유의할 점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²⁾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³⁾와는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르다.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의 표본은 1만 가구였으며,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2만 가구이다.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 가구 통계와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 가구 통계가 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조사기준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소득 및 재무(자산&부채) 관련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저자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보고서와 통계표를 가지고 복원한 자료이며, 2021년 자료는 2021년 12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통계표에 근거한 자료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통계는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로 시계열이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조사된 동일 조사항목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 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계에서의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연도 3월말 기준(2010년만 2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관련 항목들은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 표기된 각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9년 소득 및 지출(2019년 1월~12월)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본 보고서 또한 2012년 이후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비목별 소비지출 내역, 비목별 비소비지출 내역’ 등이 있다.

2)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동거인이나 시설에 장기간(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함.

3) 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2.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⁴⁾

1) 가구소득 관련 변화

2012년부터 2020년⁵⁾ 사이 시도별 가구 분포 증감률을 보면 제주(18.18%), 경기(8.04%), 인천(1.85%) 등은 가구 분포가 늘어났지만, 이외의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가구 분포가 -0.8%p(19.8→19.0%) 줄었지만, 경기도는 1.8%p(22.4→24.2%) 늘었는데, 서울 가구 상당수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경기도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시도별 가구 분포 증감률 현황(2012~202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와 통계표(2021.12.16. 발표)’에는 시도별 가구 분포 통계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의 증감률을 산정함. 충남지역은 2018년부터 세종시가 제외되었으며, 세종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증감률임에 유의할 것.

2021년 기준 경상소득은 세종시가 7,48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6,826만원), 경기(6,725만원), 울산(6,480만원), 인천(6,316만원) 등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 경상소득은 6,125만원 이었다. 반면 경북의 경상소득은 5,104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강원(5,196만원), 경남(5,303만원), 대구(5,312만원), 전남(5,456만원) 등의 순으로 소득이 적었다. 경북의 가구 경

4)본 보고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관련 수치는 모두 전체 가구 평균값이다.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중앙값임을 표기하였다.

5)본 보고서에 사용된 연도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조사연도를 의미하는데, 소득 관련 항목들의 실제 기준은 조사 전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 항목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임. 예를 들어 2021년으로 표기된 소득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2020년(1~12월) 소득을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 항목들은 2021년 3월 기준이다.

상소득은 세종시의 68.2% 수준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경상소득 순증액은 인천(2,420만원), 제주(2,250만원), 전북(2,174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소득증가율 또한 인천(62.11%), 제주(61.09%), 전북(60.88%)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 지역 경상소득 순증액은 1,208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남(1,373만원)과 울산(1,374만원)의 순증액도 낮게 나타났다.

[표1] 시도별 경상소득⁶⁾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4,233	4,855	3,798	3,845	3,896	4,118	4,260	5,106	-
2,013	4,479	4,923	4,037	3,987	4,067	4,676	4,535	5,414	-
2,014	4,658	5,034	4,215	4,299	4,245	4,732	4,792	5,638	-
2,015	4,770	5,253	4,378	4,477	4,378	4,737	4,988	5,971	-
2,016	4,882	5,366	4,384	4,705	4,640	4,885	4,948	6,039	-
2,017	5,478	6,172	4,946	5,230	5,069	5,386	5,123	6,341	-
2,018	5,705	6,495	4,996	5,351	5,536	5,410	5,309	6,581	6,872
2,019	5,828	6,595	5,181	5,301	5,704	5,796	5,688	6,413	7,147
2,020	5,924	6,575	5,402	5,288	6,075	6,030	5,714	6,445	7,425
2,021	6,125	6,826	5,519	5,312	6,316	6,076	6,111	6,480	7,488
증감	1,892	1,971	1,721	1,467	2,420	1,958	1,851	1,374	616
증가율	44.70	40.60	45.31	38.15	62.11	47.55	43.45	26.91	8.9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4,682	3,405	3,791	3,617	3,571	3,404	3,896	3,930	3,683
2,013	4,895	3,920	4,069	4,024	3,853	3,804	4,374	4,255	3,598
2,014	5,065	4,077	4,277	4,139	4,078	4,011	4,494	4,629	3,791
2,015	5,083	4,177	4,279	4,398	4,160	4,111	4,397	4,686	4,060
2,016	5,205	4,230	4,314	4,633	4,117	4,181	4,517	4,819	4,191
2,017	5,913	4,806	4,638	5,088	4,777	4,701	5,008	5,168	5,359
2,018	6,320	4,817	4,815	5,247	4,862	4,777	5,055	5,095	5,126
2,019	6,430	5,088	5,042	5,348	5,156	4,981	4,830	5,187	5,437
2,020	6,503	4,924	5,275	5,334	5,340	5,290	4,883	5,303	5,531
2,021	6,725	5,196	5,477	5,522	5,745	5,456	5,104	5,303	5,933
증감	2,043	1,791	1,686	1,905	2,174	2,052	1,208	1,373	2,250
증가율	43.64	52.60	44.47	52.67	60.88	60.28	31.01	34.94	61.0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코로나 시기(조사연도 2021년, 2020년 소득, 이하 상동) 시도별 전년 대비 경상소득 증가율은 전북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7.27%), 대전(6.95%) 등이었다. 경상소득 순증액 또한 전북(405만원), 제주(402만원), 대전(397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소득 증가율은 3.39%, 순증액은 201만원 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 가구 경상소득은 변화가 없었으며, 대구(0.45%, 24만원), 울산(0.54%, 35만원), 광주(0.76%, 46만원) 등의 소득증가율과 순증액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림2] 2020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소득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0년 소득(조사연도 2021년) 기준이며, 전년(2019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노동소득은 세종시가 5,3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4,636만원), 경기(4,463만원)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노동소득은 3,855만원 이었다. 반면 노동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2,827만원)이었고, 이어 강원(2,892만원), 전남(2,900만원)의 순으로 적었다. 경북의 가구 노동소득은 세종시 노동소득의 53.0%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노동소득 순증액은 인천(1,538만원), 광주(1,405만원), 경기(1,342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1,210만원 이었다. 반면 경남(715만원), 울산(878만원), 경북(893만원)의 순으로 순증액이 적었다.

동일 기간 노동소득 증가율은 전남이 68.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66.44%), 충남(60.70%)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45.75%였다. 울산은 23.36%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이어 경남(29.69%), 서울(38.33%)의 순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6)경상소득(가구소득) :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표2] 시도별 노동소득⁷⁾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2,645	3,159	2,388	2,174	2,563	2,515	2,799	3,758	-
2,013	2,889	3,391	2,528	2,420	2,820	2,908	3,041	3,989	-
2,014	3,025	3,507	2,616	2,540	2,885	3,101	3,297	4,260	-
2,015	3,130	3,641	2,732	2,709	2,981	3,169	3,464	4,473	-
2,016	3,199	3,650	2,748	2,848	3,106	3,340	3,471	4,628	-
2,017	3,499	4,039	2,997	3,152	3,460	3,788	3,505	4,532	-
2,018	3,640	4,376	3,080	3,138	3,715	3,777	3,573	4,787	4,969
2,019	3,781	4,433	3,266	3,179	3,803	4,032	3,725	4,829	4,997
2,020	3,791	4,324	3,375	3,201	3,937	4,159	3,706	4,774	5,045
2,021	3,855	4,370	3,396	3,342	4,101	3,920	4,045	4,636	5,337
증감	1,210	1,211	1,008	1,168	1,538	1,405	1,246	878	368
증가율	45.75	38.33	42.21	53.73	60.01	55.86	44.52	23.36	7.4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3,121	1,869	2,169	2,074	2,083	1,725	1,934	2,408	1,946
2,013	3,330	2,173	2,441	2,373	2,247	2,018	2,303	2,691	1,993
2,014	3,461	2,304	2,620	2,526	2,370	2,172	2,478	2,846	2,052
2,015	3,518	2,405	2,647	2,801	2,386	2,173	2,511	3,011	2,213
2,016	3,619	2,513	2,669	2,821	2,408	2,293	2,527	3,143	2,218
2,017	3,993	2,758	2,804	3,064	2,726	2,465	2,761	3,318	2,636
2,018	4,180	2,742	2,816	3,112	2,837	2,511	2,696	3,131	2,874
2,019	4,433	2,989	2,967	3,235	2,912	2,673	2,637	3,300	3,118
2,020	4,385	2,802	3,081	3,144	3,123	2,872	2,818	3,284	3,109
2,021	4,463	2,892	3,316	3,333	3,222	2,900	2,827	3,123	3,239
증감	1,342	1,023	1,147	1,259	1,139	1,175	893	715	1,293
증가율	43.00	54.74	52.88	60.70	54.68	68.12	46.17	29.69	66.4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노동소득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대전(9.15%), 충북(7.63%), 충남(6.01%)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69%였다. 반면 광주(-5.75%), 경남(-4.90%), 울산(-2.89%) 등은 전년보다 노동소득이 줄었다.

7)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상의 원 명칭은 근로소득임.

코로나 시기 노동소득 순증액은 대전(339만원), 세종(292만원), 충북(23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64만원이었다. 반면 광주(-239만원), 경남(-161만원), 울산(-138만원) 등은 노동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림3] 2020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노동소득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0년 소득(조사연도 2021년) 기준이며, 전년(2019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사업소득은 제주(1,484만원), 전남(1,393만원), 전북(1,334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1,135만원이었다. 반면 세종(738만원), 울산(774만원), 대구(861만원) 등의 순으로 사업소득이 적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사업소득 순증액은 전북(295만원), 전남(147만원), 제주(14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경북(-370만원), 대구(-353만원), 울산(-226만원)의 순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다. 세종시(-266만원)도 2018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다. 2012년 이후 9년간 전국 평균 사업소득은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3] 시도별 사업소득⁸⁾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1,135	1,154	962	1,214	1,004	1,067	1,008	1,000	-
2,013	1,125	1,002	1,055	1,116	886	1,253	1,036	1,032	-

2,014	1,159	970	1,126	1,295	956	1,113	1,013	961	-
2,015	1,142	1,019	1,150	1,217	1,017	1,083	1,024	1,113	-
2,016	1,119	1,009	1,045	1,241	1,094	1,006	932	979	-
2,017	1,217	1,169	1,163	1,258	1,052	902	941	1,161	-
2,018	1,243	1,079	1,061	1,309	1,120	851	985	1,089	1,004
2,019	1,177	1,080	1,027	1,188	1,109	896	1,154	893	1,132
2,020	1,151	1,104	1,026	1,109	1,112	747	1,103	800	1,056
2,021	1,135	1,091	1,019	861	1,104	947	1,041	774	738
증감	-	-63	57	-353	100	-120	33	-226	-266
증가율	-	-5.46	5.93	-29.08	9.96	-11.25	3.27	-22.60	-26.4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1,105	1,087	1,151	1,133	1,039	1,246	1,556	1,144	1,339
2,013	1,088	1,280	1,112	1,209	1,127	1,354	1,646	1,167	1,228
2,014	1,153	1,309	1,117	1,210	1,185	1,369	1,587	1,360	1,349
2,015	1,090	1,244	1,058	1,164	1,236	1,422	1,456	1,255	1,409
2,016	1,044	1,157	1,069	1,331	1,135	1,385	1,492	1,212	1,465
2,017	1,209	1,273	1,068	1,300	1,265	1,514	1,537	1,226	1,928
2,018	1,397	1,238	1,155	1,437	1,222	1,490	1,647	1,217	1,404
2,019	1,230	1,210	1,220	1,351	1,211	1,458	1,412	1,138	1,420
2,020	1,219	1,071	1,276	1,316	1,241	1,485	1,146	1,122	1,506
2,021	1,230	1,054	1,152	1,235	1,334	1,393	1,186	1,135	1,484
증감	125	-33	1	102	295	147	-370	-9	145
증가율	11.31	-3.04	0.09	9.00	28.39	11.80	-23.78	-0.79	10.8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사업소득 순증액과 증가율은 각 -16만원과 -1.39%로 전반적으로 자영업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와중에도 광주(200만원), 전북(93만원), 경북(40만원) 등은 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늘었으며, 증가율도 광주(26.77%), 전북(7.49%), 경북(3.49%) 높은 편이었다.

반면 가구 사업소득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세종시로 전년 대비 -318만원이 줄었으며, 이어 대구(-248만원), 충북(-12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세종(-30.11%), 대구(-22.36%), 충북(-9.72) 등이었다.

8)사업수입(총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

[그림4] 2020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사업소득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0년 소득(조사연도 2021년) 기준이며, 전년(2019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재산소득이 많은 지역은 세종(740만원), 서울(686만원), 인천(481만원)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32만원 이었다. 반면 재산소득이 적은 지역은 충남(273만원), 전남(288만원), 경남(297만원)의 순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재산소득 순증액은 서울(400만원), 인천(358만원), 제주(274만원)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243만원 이었다. 동일 기간 재산소득 증가율은 인천(291.06%), 전북(199.25%), 강원(191.49%)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28.57%로 해당 기간 가구 재산소득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 시도별 재산소득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189	286	151	178	123	198	171	165	-
2,013	204	280	153	153	141	194	178	202	-
2,014	190	291	145	170	160	176	160	208	-
2,015	191	300	142	200	125	138	165	191	-
2,016	221	360	186	212	162	119	189	190	-
2,017	353	565	349	313	223	233	254	297	-
2,018	380	614	402	375	334	260	300	340	488
2,019	380	609	382	374	354	271	320	267	525
2,020	417	609	397	382	518	401	340	356	701

2,021	432	686	377	352	481	380	362	407	740
증감	243	400	226	174	358	182	191	242	252
증가율	128.57	139.86	149.67	97.75	291.06	91.92	111.70	146.67	51.6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11	141	161	154	134	111	146	121	160
2,013	258	158	189	175	131	113	155	149	153
2,014	205	139	182	119	154	121	141	137	137
2,015	209	152	201	140	160	116	124	115	142
2,016	256	180	162	136	153	105	127	147	217
2,017	361	300	248	282	286	231	271	261	402
2,018	366	307	282	231	269	235	227	305	413
2,019	344	312	303	274	457	253	230	261	419
2,020	411	392	298	286	336	274	283	282	383
2,021	399	411	298	273	401	288	330	297	434
증감	188	270	137	119	267	177	184	176	274
증가율	89.10	191.49	85.09	77.27	199.25	159.46	126.03	145.45	171.2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재산소득 순증액은 서울(77만원), 전북(65만원), 울산(51만원)의 순으로 많이 늘었고, 인천(-37만원), 대구(-30만원), 광주(-21만원) 등은 줄었다. 전국 평균 전년 대비 재산소득 순증액은 15만원이었으며, 증가율은 3.60%였다.

[그림5] 2020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재산소득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0년 소득(조사연도 2021년) 기준이며, 전년(2019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이전소득은 전남(875만원), 강원(839만원), 광주(830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703만원 이었다.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으로 631만원 이었으며, 이어 경기(633만원), 대전 및 울산(663만원)의 순으로 적었는데,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편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이전소득 순증액은 전남(553만원), 제주(538만원), 강원(532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439만원이었다. 이전소득 증가율은 울산(262.30%), 제주(226.05%), 인천(207.80%)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66.29%로 전국적으로 큰 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별 통계의 경우 이전소득 관련 통계가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간 기초연금이나 육아수당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5] 시도별 이전소득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264	256	297	279	205	337	282	183	-
2,013	261	250	302	298	220	321	281	191	-
2,014	284	266	328	294	245	342	323	208	-
2,015	307	294	354	351	254	348	335	195	-
2,016	343	346	406	404	279	420	357	242	-
2,017	409	399	437	507	334	463	424	351	-
2,018	443	427	453	530	366	521	450	364	412
2,019	489	473	507	560	438	596	490	424	493
2,020	565	538	604	596	507	723	565	515	624
2,021	703	679	727	757	631	830	663	663	674
증감	439	423	430	478	426	493	381	480	262
증가율	166.29	165.23	144.78	171.33	207.80	146.29	135.11	262.30	63.5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44	307	310	256	315	322	260	256	238
2,013	219	309	327	268	348	319	270	249	225
2,014	245	324	358	285	369	349	288	286	253
2,015	266	376	373	293	379	400	306	305	296
2,016	285	380	413	344	421	398	371	317	290

2,017	350	476	518	442	499	491	439	363	393
2,018	377	530	563	467	534	542	485	443	436
2,019	422	576	553	488	576	597	551	487	481
2,020	488	659	621	588	639	660	636	615	533
2,021	633	839	712	682	787	875	761	749	776
증감	389	532	402	426	472	553	501	493	538
증가율	159.43	173.29	129.68	166.41	149.84	171.74	192.69	192.58	226.0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코로나 시기 전년 대비 이전소득 순증액은 제주(243만원), 전남(215만원), 강원(1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138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이전소득 증가율은 제주(45.59%), 전남(32.58%), 경기(29.71%)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24.42%였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2019년에 비해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6] 2020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이전소득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0년 소득(조사연도 2021년) 기준이며, 전년(2019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 시도별 가구 재무상태 변화

2021년 기준 가구 총자산은 서울이 76,5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75,688만원), 제주(56,760만원)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가구 자산은 50,253만원이었다. 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31,143만원이었으며, 충남(31,483만원), 전남(31,646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 가구 자산은 서울 가구 자산의 40.7%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자산 순증액은 서울이 29,46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주(28,603만원), 세종(20,971만원)의 순이었는데, 세종시의 경우 통계치가 제공된 2018년 이후 단 4년 만에 20,971만원이 증가했다. 전국 가구 자산 평균 순증액은 17,929만원 이었다.

동일 기간 자산 증가율은 제주가 101.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78.54%), 전남(75.38%)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5.47%였다.

[표6] 시도별 가구 총자산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32,324	47,114	24,668	27,099	26,384	22,390	26,712	30,910	-
2,013	32,688	45,578	25,176	27,123	26,041	25,802	26,968	33,202	-
2,014	33,539	46,785	25,414	30,220	26,773	26,146	28,146	35,682	-
2,015	34,685	48,687	26,728	36,675	27,907	26,421	29,886	36,749	-
2,016	36,637	50,681	28,698	41,437	29,299	28,577	31,146	39,219	-
2,017	38,671	54,431	31,482	39,500	30,464	29,815	31,149	40,766	-
2,018	42,036	60,714	35,272	43,053	33,800	32,369	33,924	43,436	54,717
2,019	43,191	64,240	35,781	41,818	35,159	34,387	35,692	39,305	58,784
2,020	44,543	67,839	36,542	40,826	40,605	35,554	36,864	39,420	59,671
2,021	50,253	76,578	44,042	43,848	45,085	39,428	45,581	43,167	75,688
증감	17,929	29,464	19,374	16,749	18,701	17,038	18,869	12,257	20,971
증가율	55.47	62.54	78.54	61.81	70.88	76.10	70.64	39.65	38.3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39,151	21,814	26,874	24,934	21,793	18,044	23,414	25,246	28,157
2,013	38,869	23,437	27,457	26,808	22,277	20,342	26,423	27,358	26,181
2,014	38,595	23,448	28,394	29,022	23,331	20,735	28,138	28,546	26,398
2,015	38,464	25,795	29,357	29,876	23,384	21,859	28,366	28,713	29,646
2,016	39,735	26,948	30,242	30,856	24,207	24,785	30,746	32,118	35,011
2,017	42,032	28,474	30,808	32,173	26,189	27,383	31,886	32,643	43,068

2,018	45,940	31,791	31,201	30,923	27,539	29,253	32,255	33,042	48,972
2,019	47,546	34,879	31,152	29,534	28,877	30,196	31,316	32,049	50,459
2,020	48,437	34,307	30,193	30,466	29,732	31,512	30,457	31,511	52,147
2,021	56,687	37,877	31,811	31,483	34,160	31,646	31,143	33,588	56,760
증감	17,536	16,063	4,937	6,549	12,367	13,602	7,729	8,342	28,603
증가율	44.79	73.64	18.37	26.27	56.75	75.38	33.01	33.04	1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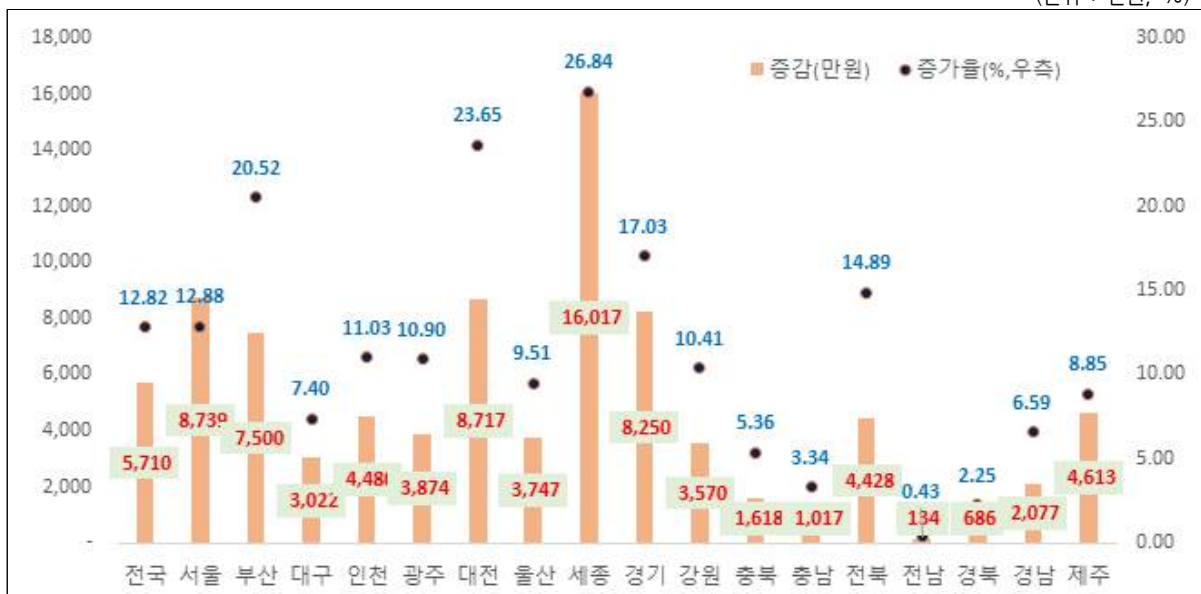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자산 증가율은 세종시가 26.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23.65%), 부산(20.52%)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2.82%였다. 전년 동월 대비 자산 순증액 또한 세종시가 16,01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8,739만원)과 대전(8,717만원)이 그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5,710만원이었다.

[그림기]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자산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가구 금융자산은 서울이 17,2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12,816만원)와 경기도(12,509만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전국 평균 금융자산은 11,319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금융자산 순증액은 서울(5,335만원), 인천(4,243만원), 광주(3,741

만원)의 순으로 많았는데, 전국 평균 금융자산 순증액은 3,178만원이었다. 동일 기간 금융자산 증가율은 인천(65.91%), 전남(57.77%), 광주(53.20%)의 순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39.04%였다.

[표7] 시도별 가구 금융자산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8,141	11,877	6,699	7,517	6,438	7,032	7,032	7,720	-
2013	8,827	12,646	7,201	7,684	6,557	8,501	7,355	9,039	-
2014	9,013	13,103	7,271	7,444	6,908	8,626	7,968	9,590	-
2015	9,290	13,685	7,543	8,274	7,022	8,519	8,703	10,155	-
2016	9,638	14,226	7,472	9,571	7,262	9,387	8,920	10,492	-
2017	9,722	14,633	7,103	9,463	7,118	9,304	8,297	9,672	-
2018	10,346	15,989	7,461	9,450	8,066	9,117	8,424	10,934	11,050
2019	10,570	15,889	7,986	9,029	9,074	9,485	8,830	10,246	11,355
2020	10,504	15,588	7,819	8,932	9,449	9,629	8,751	10,017	11,690
2021	11,319	17,212	8,817	8,887	10,681	10,773	10,369	9,662	12,816
증감	3,178	5,335	2,118	1,370	4,243	3,741	3,337	1,942	1,766
증가율	39.04	44.92	31.62	18.23	65.91	53.20	47.45	25.16	15.9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9,637	5,612	5,887	5,585	5,839	5,314	5,404	6,274	5,840
2013	10,243	6,308	6,887	6,034	6,305	6,364	6,312	7,480	6,085
2014	10,054	6,342	7,192	6,374	6,591	6,612	6,868	7,638	6,503
2015	10,248	7,070	6,628	6,891	6,714	6,676	6,860	7,451	6,465
2016	10,473	6,940	7,118	6,863	6,449	7,034	7,385	8,076	6,126
2017	10,705	6,716	6,941	6,749	6,925	7,587	7,591	7,829	6,506
2018	11,396	7,272	7,754	6,479	7,498	8,279	7,544	7,681	8,065
2019	11,905	7,952	7,902	6,922	7,715	8,195	7,239	7,875	8,446
2020	11,980	7,394	7,753	7,050	7,932	7,915	7,093	7,601	8,215
2021	12,509	7,946	8,231	7,769	8,193	8,384	7,418	8,439	8,528
증감	2,872	2,334	2,344	2,184	2,354	3,070	2,014	2,165	2,688
증가율	29.80	41.59	39.82	39.10	40.32	57.77	37.27	34.51	46.0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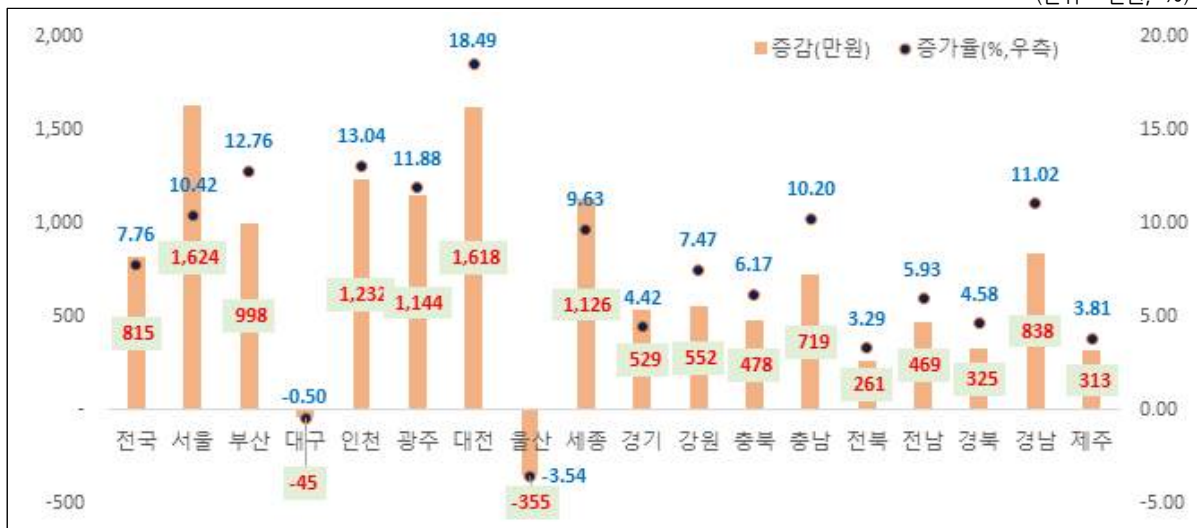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자산 순증액은 서울(1,674만원), 대전(1,618만원), 인천(1,232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815만원이었다. 반면 울산(-355만원)

과 대구(-45만원)의 금융자산은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금융자산 증가율은 대전(18.49%), 인천(13.04%), 부산(12.76%)의 순이었
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7.76%였다.

[그림8]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금융자산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가구 실물자산은 세종시가 62,87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59,366만원), 제주(48,232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실물자산은 38,934만원이었다. 반면 실물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23,262만원이었고, 충북(23,580만원)과 충남(23,71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실물자산 순증액은 제주(25,915만원), 서울(24,129만원), 세종(19,206만원)의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018년 이후 4년 만의 순증액이라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 순증액은 14,750만원 이었다. 반면 충북(2,593만원), 충남(4,365만원), 경북(5,716만원)의 순으로 순증액이 적었다.

동일 기간 실물자산 증가율은 제주(116.12%), 부산(96.04%), 광주(86.59%)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60.99%로 금융자산 평균 증가율 39.0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8] 시도별 가구 실물자산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	----	----	----	----	----	----	----	----

2012	24,184	35,237	17,968	19,583	19,946	15,357	19,680	23,189	-
2013	23,861	32,933	17,975	19,440	19,484	17,301	19,612	24,163	-
2014	24,526	33,682	18,143	22,776	19,866	17,520	20,178	26,092	-
2015	25,396	35,002	19,186	28,401	20,885	17,902	21,182	26,594	-
2016	26,999	36,455	21,227	31,866	22,038	19,189	22,226	28,728	-
2017	28,950	39,798	24,379	30,037	23,346	20,511	22,852	31,094	-
2018	31,689	44,724	27,811	33,604	25,734	23,252	25,500	32,502	43,666
2019	32,621	48,351	27,795	32,790	26,085	24,902	26,861	29,060	47,429
2020	34,039	52,251	28,723	31,895	31,156	25,924	28,113	29,403	47,981
2021	38,934	59,366	35,225	34,962	34,404	28,655	35,212	33,506	62,872
증감	14,750	24,129	17,257	15,379	14,458	13,298	15,532	10,317	19,206
증가율	60.99	68.48	96.04	78.53	72.49	86.59	78.92	44.49	43.9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9,514	16,202	20,987	19,349	15,954	12,730	18,009	18,972	22,317
2013	28,626	17,130	20,570	20,774	15,971	13,979	20,111	19,878	20,097
2014	28,541	17,106	21,202	22,648	16,740	14,123	21,271	20,907	19,895
2015	28,216	18,725	22,729	22,986	16,670	15,184	21,506	21,261	23,181
2016	29,261	20,008	23,124	23,993	17,759	17,752	23,360	24,042	28,885
2017	31,327	21,757	23,867	25,424	19,264	19,796	24,295	24,815	36,563
2018	34,544	24,519	23,447	24,444	20,041	20,973	24,711	25,361	40,907
2019	35,641	26,927	23,250	22,612	21,162	22,001	24,077	24,174	42,014
2020	36,457	26,913	22,440	23,416	21,800	23,596	23,364	23,910	43,932
2021	44,169	29,931	23,580	23,714	25,967	23,262	23,725	25,150	48,232
증감	14,655	13,729	2,593	4,365	10,013	10,532	5,716	6,178	25,915
증가율	49.65	84.74	12.36	22.56	62.76	82.73	31.74	32.56	116.1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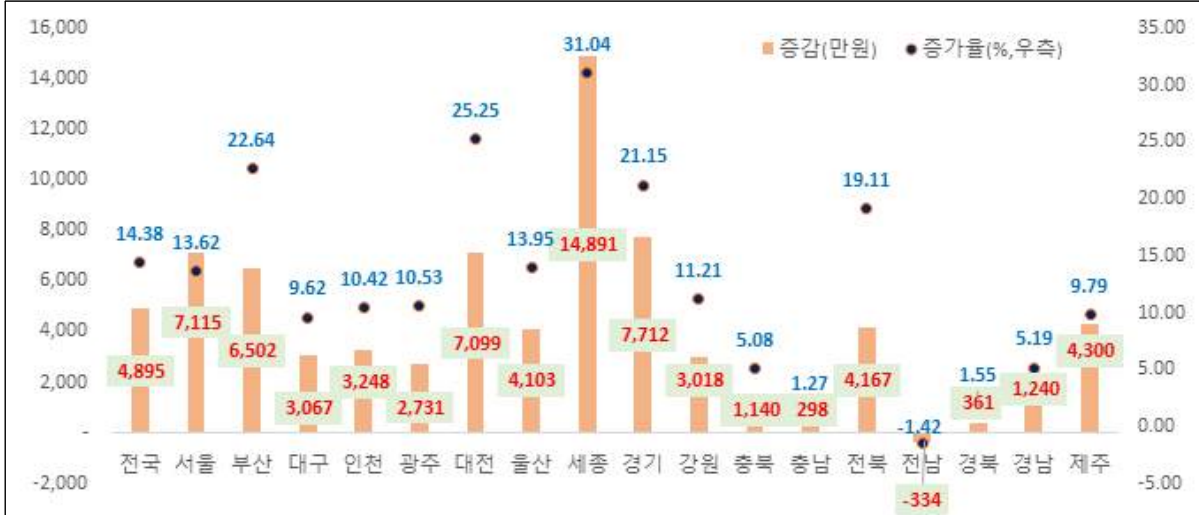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시도별 실물자산 순증액의 경우, 세종시가 14,891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7,712만원), 서울(7,115만원)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4,895만원이었다. 전남 지역만 유일하게 가구 실물자산이 전년 동월 대비 -334만원을 기록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실물자산 증가율을 또한 세종시가 31.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25.25%)과 부산(22.64%)의 순이었다. 전남의 실물자산 증가율은 -1.42%였으며, 충남(1.27%)과 경북(1.55%)의 실물자산 증가율도 매우 낮았다.

[그림9]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실물자산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시도별 가구 부채를 보면, 세종(13,063만원), 서울(11,716만원), 경기(11,026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은 8,801만원 이었다. 반면 전남의 가구 부채는 4,622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5,014만원)과 충북(5,064만원)의 순으로 적었다. 전남 가구 부채는 세종시의 35.4%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가구 부채 순증액의 경우, 대구(4,667만원), 부산(4,589만원), 인천(3,609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가구 부채 순증액은 3,351만원이었다. 충북의 경우 가계부채 순증액은 1,316만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대구 순증액의 28.2%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가구 부채 증가율은 전남(124.81%), 부산(122.37%), 대구(118.84%)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61.49%였다.

[표9] 시도별 가구 부채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5,450	8,263	3,750	3,927	5,298	3,608	4,582	4,164	-
2013	5,858	8,596	4,207	4,249	5,678	3,761	4,749	4,532	-
2014	6,051	8,924	4,164	4,737	5,892	3,882	5,376	4,850	-
2015	6,256	9,425	4,255	5,587	6,346	3,912	5,217	5,726	-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16	6,719	9,736	4,664	6,517	6,632	3,985	5,423	6,116	-
2017	7,099	9,690	5,181	6,424	6,333	4,312	6,158	7,352	-
2018	7,668	10,073	6,096	7,670	7,065	4,785	6,675	7,568	10,254
2019	7,910	10,635	6,217	7,546	7,277	5,003	6,763	6,672	10,145
2020	8,256	11,077	6,712	7,894	8,498	6,035	6,562	6,776	10,793
2021	8,801	11,716	8,339	8,594	8,907	6,593	8,106	6,963	13,063
증감	3,351	3,453	4,589	4,667	3,609	2,985	3,524	2,799	2,809
증가율	61.49	41.79	122.37	118.84	68.12	82.73	76.91	67.22	27.3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7,536	3,529	3,748	3,376	3,106	2,056	2,903	3,559	4,843
2013	8,017	3,986	3,918	4,449	3,586	2,488	3,258	3,963	4,484
2014	7,875	3,967	3,915	4,690	3,776	2,981	3,761	4,423	4,548
2015	7,839	4,004	4,183	4,705	3,868	3,125	3,980	4,358	4,454
2016	8,207	4,243	4,827	5,069	4,215	4,123	4,645	5,347	5,346
2017	9,028	4,153	5,195	5,941	4,121	4,188	4,719	6,141	5,942
2018	9,850	4,508	5,112	5,590	4,376	4,561	5,082	6,728	6,466
2019	10,217	4,924	5,195	5,225	4,973	4,765	5,067	6,804	7,289
2020	10,213	5,619	5,547	5,644	5,378	4,545	5,228	7,067	7,869
2021	11,026	5,539	5,064	5,802	5,869	4,622	5,014	6,751	7,764
증감	3,490	2,010	1,316	2,426	2,763	2,566	2,111	3,192	2,921
증가율	46.31	56.96	35.11	71.86	88.96	124.81	72.72	89.69	60.3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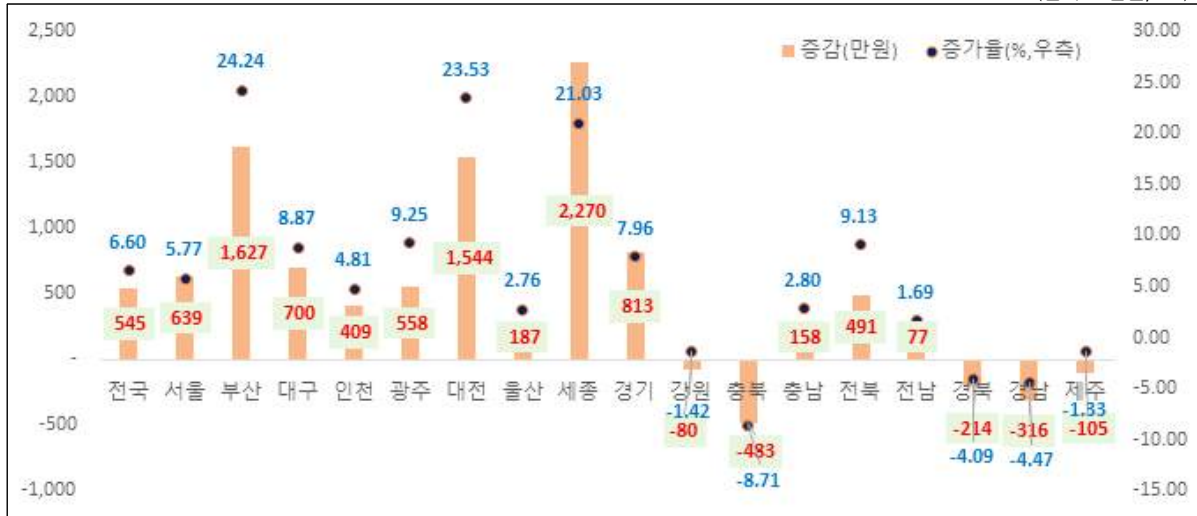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가구 부채 순증액은 세종(2,270만원), 부산(1,627만원), 대전(1,544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545만원 이었다. 반면 충북(-483만원), 경남(-316만원), 경북(-214만원), 제주(-105만원), 강원(-80만원) 등의 지역은 가구 부채가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가구 부채 증가율은 부산(24.24%), 대전(23.53%), 세종(21.03%)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6.60%였다.

[그림10]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부채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가구 금융부채는 세종(10,184만원), 경기(8,216만원), 인천(7,404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금융부채는 6,518만원이었다.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금융부채 순증액은 대구(3,908만원), 부산(3,837만원), 인천(3,28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2,834만원 이었다. 동일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대구(135.60%), 부산(132.86%), 전남(127.98%)의 순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76.93%였다.

[표10] 시도별 가구 금융부채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3,684	4,302	2,888	2,882	4,119	2,841	3,038	3,017	-
2013	3,974	4,618	3,179	3,262	4,361	2,927	3,324	3,205	-
2014	4,118	4,766	3,097	3,735	4,570	3,056	3,927	3,432	-
2015	4,361	5,228	3,174	4,494	4,963	3,209	3,836	4,133	-
2016	4,721	5,402	3,456	5,226	5,192	3,284	3,910	4,342	-
2017	5,041	5,609	3,950	4,925	5,107	3,416	4,250	5,290	-
2018	5,539	5,900	4,765	6,039	5,498	3,752	4,690	5,614	7,812
2019	5,755	6,196	4,745	5,874	5,792	4,081	4,947	4,860	7,470
2020	6,050	6,392	5,351	6,209	6,807	5,029	5,028	4,928	8,360
2021	6,518	6,997	6,725	6,790	7,404	5,566	6,071	5,184	10,184
증감	2,834	2,695	3,837	3,908	3,285	2,725	3,033	2,167	2,372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증가율	76.93	62.65	132.86	135.60	79.75	95.92	99.84	71.83	30.3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5,341	2,787	2,844	2,651	2,463	1,694	2,355	2,676	4,460
2013	5,527	3,226	2,850	3,563	2,871	2,048	2,607	3,003	3,970
2014	5,424	3,194	2,863	3,650	3,087	2,429	3,070	3,393	4,083
2015	5,479	3,369	3,197	3,580	3,388	2,637	3,424	3,460	4,020
2016	5,789	3,583	3,568	4,147	3,644	3,536	3,954	4,187	4,876
2017	6,431	3,479	3,600	4,988	3,422	3,552	4,113	4,640	5,335
2018	7,103	3,835	3,817	4,701	3,744	3,918	4,373	5,517	5,450
2019	7,664	4,100	3,795	4,263	4,114	4,137	4,206	5,599	6,313
2020	7,747	4,443	4,244	4,728	4,383	3,884	4,106	5,940	6,829
2021	8,216	4,584	4,073	4,951	4,976	3,862	4,142	5,714	6,847
증감	2,875	1,797	1,229	2,300	2,513	2,168	1,787	3,038	2,387
증가율	53.83	64.48	43.21	86.76	102.03	127.98	75.88	113.53	5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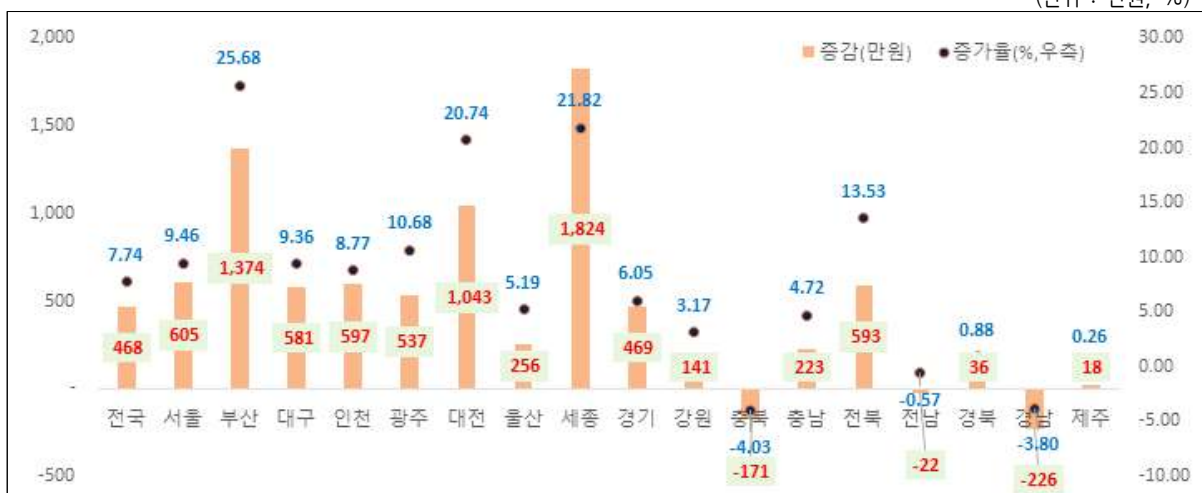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부채 순증액은 세종(1,824만원), 부산(1,374만원), 대전(1,043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468만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부산(25.68%), 세종(21.82%), 대전(20.74%)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7.74%였다. 충북(-4.03%), 경남(-3.80%), 전남(-0.57%)의 경우 금융부채가 줄었다.

[그림11]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금융부채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시도별 가구 임대보증금 보유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4,718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세종(2,879만원), 경기(2,809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임대보증금은 517만원 이었다. 임대보증금을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전남으로 759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임대보증금 순증액을 보면, 서울과 대구(각 758만원), 부산(752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517만원 이었다. 동일 기간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제주(139.43%), 전남(109.67%), 부산(87.24%)의 순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29.28% 였다.

[표11] 시도별 가구 임대보증금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1,766	3,960	862	1,045	1,180	767	1,544	1,147	-
2013	1,884	3,978	1,028	987	1,318	834	1,425	1,327	-
2014	1,933	4,159	1,067	1,002	1,322	826	1,449	1,418	-
2015	1,896	4,197	1,080	1,093	1,383	703	1,380	1,592	-
2016	1,998	4,334	1,207	1,291	1,440	702	1,513	1,773	-
2017	2,058	4,081	1,231	1,499	1,226	895	1,908	2,062	-
2018	2,129	4,174	1,330	1,631	1,567	1,033	1,986	1,954	2,441
2019	2,155	4,439	1,472	1,672	1,485	922	1,816	1,812	2,675
2020	2,207	4,686	1,361	1,686	1,692	1,006	1,534	1,848	2,434
2021	2,283	4,718	1,614	1,803	1,504	1,026	2,035	1,779	2,879
증감	517	758	752	758	324	259	491	632	438
증가율	29.28	19.14	87.24	72.54	27.46	33.77	31.80	55.10	17.9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195	742	904	725	643	362	549	883	383
2013	2,491	760	1,068	885	715	441	651	960	514
2014	2,450	773	1,052	1,039	689	552	691	1,031	465
2015	2,360	636	985	1,125	479	488	556	898	433
2016	2,418	660	1,259	922	570	587	692	1,160	470
2017	2,596	674	1,595	953	699	637	606	1,501	607
2018	2,747	673	1,295	889	633	643	709	1,211	1,016
2019	2,553	824	1,400	962	859	628	860	1,206	976
2020	2,466	1,175	1,303	917	995	661	1,122	1,127	1,039
2021	2,809	955	991	851	893	759	873	1,037	917
증감	614	213	87	126	250	397	324	154	534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증가율	27.97	28.71	9.62	17.38	38.88	109.67	59.02	17.44	139.43
-----	-------	-------	------	-------	-------	--------	-------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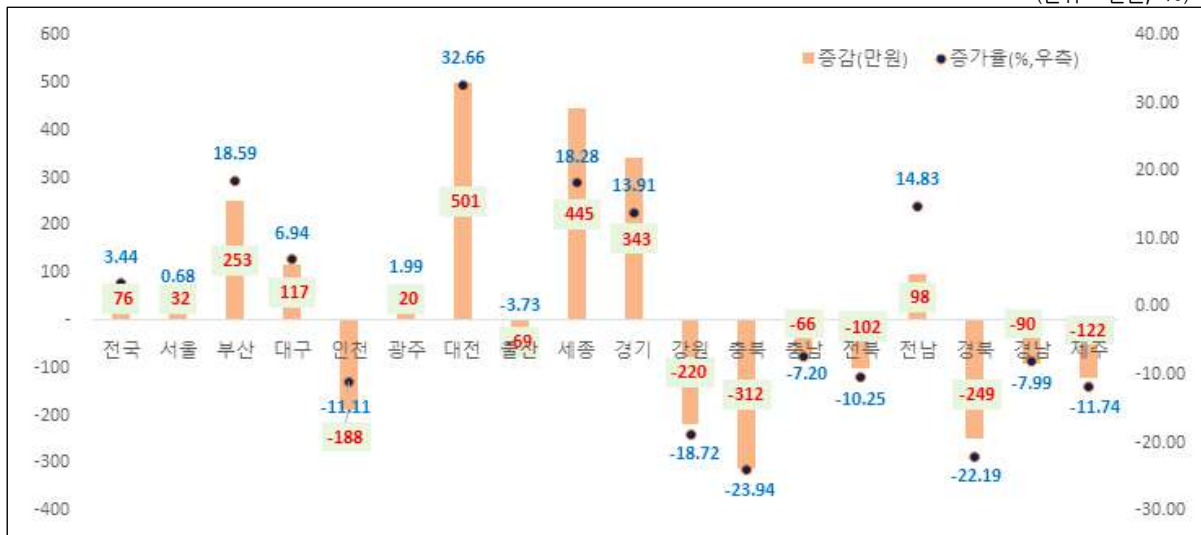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임대보증금 순증액은 대전(501만원), 세종(445만원), 경기(343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76만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대전(32.66%), 부산(18.59%), 세종(18.28%)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3.44%였다.

충북(-23.94%), 경북(-22.19%), 강원(-18.72%), 제주(-11.74%), 인천(-11.11%), 전북(-10.25%), 경남(-7.99%), 충남(-7.20%), 울산(-3.73%) 등의 임대보증금은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그림12]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임대보증금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시도별 가구 순자산은 서울(64,862만원), 세종(62,625만원), 제주(48,995만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국 평균 가구 순자산은 41,452만원이었다. 가구 순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25,681만원)이었고, 이어 경북(26,129만원)과 충북(26,747만원)의 순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서울(26,011만원), 제주(25,681만원), 대전(15,345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14,577만원이었다. 동일 기간 순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3,621만원)이었는데, 서울 순증액의 13.9%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순자산 증가율은 제주(110.15%), 강원(76.86%), 광주(74.82%)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54.24%였다. 동일 기간 충북 지역 순자산 증가율은 15.66%로 가장 낮았다.

[표12] 시도별 가구 순자산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26,875	38,851	20,918	23,173	21,086	18,782	22,130	26,746	-
2013	26,831	36,982	20,968	22,874	20,363	22,041	22,219	28,670	-
2014	27,488	37,861	21,249	25,483	20,882	22,264	22,770	30,832	-
2015	28,429	39,262	22,474	31,088	21,562	22,509	24,669	31,023	-
2016	29,918	40,944	24,035	34,920	22,667	24,591	25,723	33,104	-
2017	31,572	44,741	26,301	33,076	24,131	25,503	24,991	33,414	-
2018	34,368	50,641	29,176	35,383	26,735	27,585	27,248	35,868	44,463
2019	35,281	53,605	29,564	34,272	27,882	29,385	28,928	32,633	48,639
2020	36,287	56,762	29,830	32,932	32,106	29,518	30,302	32,644	48,878
2021	41,452	64,862	35,703	35,255	36,178	32,835	37,475	36,204	62,625
증감	14,577	26,011	14,785	12,082	15,092	14,053	15,345	9,458	18,162
증가율	54.24	66.95	70.68	52.14	71.57	74.82	69.34	35.36	40.8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31,616	18,285	23,126	21,558	18,687	15,988	20,510	21,687	23,314
2013	30,852	19,452	23,539	22,359	18,691	17,854	23,165	23,395	21,697
2014	30,720	19,481	24,479	24,332	19,555	17,754	24,377	24,122	21,850
2015	30,625	21,791	25,174	25,171	19,516	18,734	24,386	24,355	25,192
2016	31,527	22,705	25,414	25,787	19,993	20,663	26,101	26,771	29,665
2017	33,005	24,321	25,613	26,232	22,068	23,195	27,166	26,502	37,126
2018	36,090	27,283	26,089	25,333	23,163	24,692	27,173	26,314	42,507
2019	37,329	29,954	25,957	24,309	23,903	25,432	26,249	25,244	43,170
2020	38,225	28,689	24,646	24,822	24,354	26,967	25,228	24,444	44,278
2021	45,653	32,338	26,747	25,681	28,291	27,024	26,129	26,837	48,995
증감	14,037	14,053	3,621	4,123	9,604	11,036	5,619	5,150	25,681
증가율	44.40	76.86	15.66	19.13	51.39	69.03	27.40	23.75	110.1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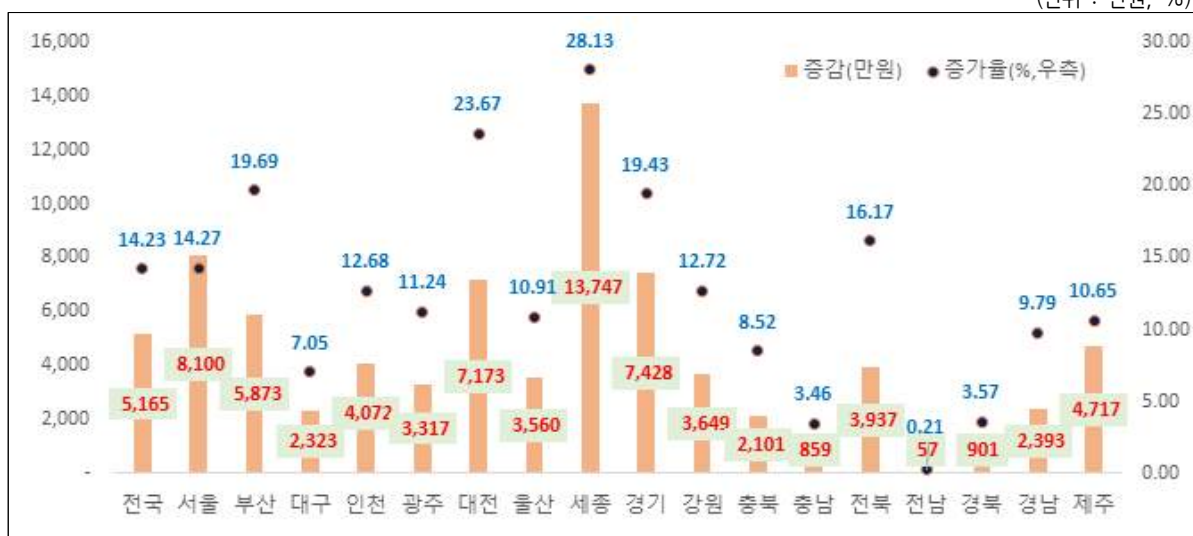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순자산 순증액은 세종시가 13,7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8,100만원), 경기(7,428)의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 순증액은 5,165만원이었다. 순자산 순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57만원)으로 세종시 순증액의 0.4%에 불과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세종(28.13%), 대전(23.67%), 부산(19.69%)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14.23%였다. 전남 지역 증가율은 0.21%에 머물렀다.

[그림13] 2021년(코로나 시기) 시도별 가구 순자산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2021년 3월 기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감액과 증가율임.

2021년 기준 시도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세종(174.45%), 서울(171.64%), 경기(163.96%)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부채비율은 143.69%였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경상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대구시가 59.65%p로 상승하였고, 이어 부산(52.36%p), 경남(36.75%p)의 순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14.94%p 상승했다.

반면 동일 기간 충북(-6.41%p)과 제주(-0.63%p)시의 경상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표13] 시도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p)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128.75	170.20	98.74	102.13	135.99	87.62	107.56	81.55	-
2013	130.79	174.61	104.21	106.57	139.61	80.43	104.72	83.71	-
2014	129.91	177.27	98.79	110.19	138.80	82.04	112.19	86.02	-

2015	131.15	179.42	97.19	124.79	144.95	82.58	104.59	95.90	-
2016	137.63	181.44	106.39	138.51	142.93	81.58	109.60	101.28	-
2017	129.59	157.00	104.75	122.83	124.94	80.06	120.20	115.94	-
2018	134.41	155.09	122.02	143.34	127.62	88.45	125.73	115.00	149.21
2019	135.72	161.26	120.00	142.35	127.58	86.32	118.90	104.04	141.95
2020	139.37	168.47	124.25	149.28	139.88	100.08	114.84	105.14	145.36
2021	143.69	171.64	151.10	161.78	141.02	108.51	132.65	107.45	174.45
증감	14.94	1.44	52.36	59.65	5.04	20.89	25.09	25.90	25.24
증가율	11.60	0.85	53.03	58.41	3.70	23.85	23.32	31.76	16.9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160.96	103.64	98.87	93.34	86.98	60.40	74.51	90.56	131.50
2013	163.78	101.68	96.29	110.56	93.07	65.40	74.49	93.14	124.62
2014	155.48	97.30	91.54	113.31	92.59	74.32	83.69	95.55	119.97
2015	154.22	95.86	97.76	106.98	92.98	76.02	90.52	93.00	109.70
2016	157.68	100.31	111.89	109.41	102.38	98.61	102.83	110.96	127.56
2017	152.68	86.41	112.01	116.76	86.27	89.09	94.23	118.83	110.88
2018	155.85	93.59	106.17	106.54	90.00	95.48	100.53	132.05	126.14
2019	158.90	96.78	103.03	97.70	96.45	95.66	104.91	131.17	134.06
2020	157.05	114.11	105.16	105.81	100.71	85.92	107.07	133.26	142.27
2021	163.96	106.60	92.46	105.07	102.16	84.71	98.24	127.31	130.86
증감	3.00	2.96	-6.41	11.73	15.18	24.31	23.72	36.75	-0.63
증가율	1.86	2.86	-6.48	12.57	17.45	40.26	31.84	40.58	-0.4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1년 보도자료

주) 2018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된 세종시의 경우 증감액이나 증가율 산출 기간은 2018~2021년임.

3. 나가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던 지난 보고서들을 통해 ‘가구주 및 가구’ 특성별로 가구 집단 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과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시도별 가구소득 및 자산 불평등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가구소득은 코로나 국면에도 3.39% 증가했는데,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24.24%)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었다. 한편 지역별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은 노동소득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었다.

2020년 가구소득(조사연도 2021년)은 전국 평균 6,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9%(201만원) 증가했는데, 소득원천별로 전년 대비 증가율과 순증액을 살펴보면, 노동소득(1.69%, 64만원), 사업소득(-1.39%, -16만원), 재산소득(3.60%, 15만원), 이전소득(24.42%, 13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줄었지만, 노동소득이 소폭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결과 가구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은 전북(7.58%), 제주(7.27%), 대전(6.95%)의 순으로 높았고, 반면 경남(0.00%), 대구(0.45%), 울산(0.54%)의 순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20년 소득 기준 시도별 가구소득은 세종(7,488만원), 서울(6,826만원), 경기(6,725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가구소득은 6,125만원이었다. 경북 지역 가구소득은 5,10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021년 기준 노동소득은 세종(5,337만원), 울산(4,636만원), 경기(4,463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은 3,855만원이었다. 반면 노동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2,827만원)으로 세종시 노동소득의 53.0%에 불과했다. 시도별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원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노동소득 격차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소득의 증대가 필요해 보였다.

둘째, 2021년 가구 순자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23%나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높은 실물 자산(부동산) 증가율이었다. 코로나 시기 세종시 가구 순자산이 1년간 13,747만원이나 늘어났지만, 전남은 불과 57만원 증가하는 등 시도별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자산 불평등 악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2021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순자산 순증액은 세종(13,747만원), 서울(8,100만원), 경기(7,428)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5,165만원, 평균 증가율은 14.23%였다. 순자산 순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57만원)으로 세종시 순증액의 0.4%에 불과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실물자산 순증액 또한 세종시가 14,891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4,895만원, 평균 증가율은 14.38%였다. 가구 실물자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 추정된다. 전남만 유일하게 실물자산이 전년 동월 대비 -334만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기준 가구 순자산은 서울(64,862만원), 세종(62,625만원), 제주(48,995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자산은 41,452만원이었다. 가구 순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25,681만원)이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서울(26,011만원), 제주(25,681만원), 세종(18,162만원)의 순으로 많았고, 전국 평균 순증액은 14,577만원이었다. 동일 기간 순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3,621만원)으로, 서울 순증액의 13.9% 수준에 불과했다. 시도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셋째,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소득 증대 및 자산 불평등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2019년)’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은 지수 0.44로 2018년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하여 2003년 4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끝)